



KTX-2 고등훈련기는 마하 1.4의 속도를 낼수 있는 초음속기로 공군의 F-5전투기(훈련용)를 대체할 예정이다.

KTX-2 고등훈련기 최초공개

삼성항공 서울군수산업전에서 집중홍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항공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KTX-2 고등훈련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지난 9월 28일 무역센터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서울군수산업전에 KTX-2 실물크기의 모형이 전시된 것을 보면 외형 설계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KTX-2 개발사업은 KFP사업의 off-set물량 3억달러어치를 기술이전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삼성항공이 주계약자로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공동개발중이다.

KTX-2사업은 1996년부터 본격개발에 착수 2002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200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항공의 기술인원 100여명이 미 Lockheed사에 파견되어 탐색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P&W MTF 독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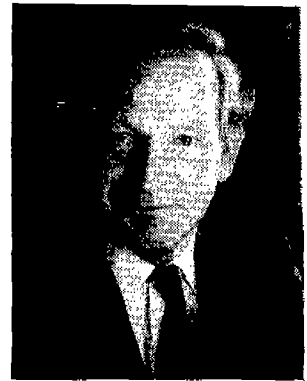
100석급 여객기용 엔진시장 낙관

P&W사는 앞으로 2020년까지 중소형항공기 세계시장이 6,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중형급엔진 MTFE(Medium Thrust Family Engine)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P&W사의 모기업인 UTC의 조지데이비드 사장은 지난 10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100인승급 항공기엔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중개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엔진공급자로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동 엔진은 추력 2만파운드급으로 이미 개념설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엔진의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우선 독자로 사업을 추진한 뒤 파트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해 동 MTFE는 독자로 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급엔진으로는 세계적으로 BMW/Rolls-Royce가 BR시리즈를 개발중이고, GE와 Snecma가 CFM계열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P&W사는 한국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힌 회사로 대한항공에서 운용중인 모든 항공기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문중인 B777-300 신형기 엔진도 PW4090과 PW4098로 선정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도입한 40대의 F-16 전투기에는 F100-PW-220엔진이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항공에서 생산 중인 F-16에도 F100-PW-229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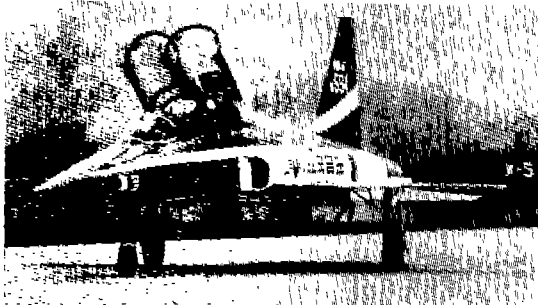


UTC 조지데이비드사장이 방한, 100인승급 항공기용 엔진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F-5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본격추진

삼성항공, 정부허가 받아

삼성항공(대표이사 :李大遠)은 F-5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고수리에 따라 미국의 노드롭 그루먼사로부터 관련기술을 도입, 전투기 개조사업을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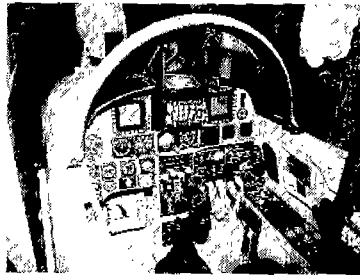
격 추진키로 하였다.

지난 62년 개발·생산된 F-5전투기는 현재 F-5A, B, E, F 등 4개 기종이 전세계 26개국에서 약 1,700여대가 운용중인데 최근 수명연장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수명연장용 기체부품의 신규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의 붕괴로 동서전영간의 대결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항공기의 구매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각국의 공군은 기존 항공기의 수명이 다하거나 성능이 뒤떨어진 항공기를 수리/개조 혹은 성능개량 및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동사업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삼성항공은 한국 전투기사업(KFP)을 통하여 확보한 초음속 전투기 제작기술, 항공전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등을 이용하여 노드롭 그루먼사와 F-5E/F 모델을 중심으로 수리/개조/부품제작/성능개량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전에 노드롭, 삼성항공, 스페인의 CASA, 캐나다의 브리스톨 등 4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각사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①주요부품 제작/판매 사업은 F-5전투기의 운용 및 유지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및 주요 기골부품을 제작, 미공군 및 각국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삼성항공은 날개, Dorsal Longeron, Cockpit Longeron, 수평포리날개를 맡고 ②수리/정비/개조사업은 전세계 F-5전투기를 대상으로 노드롭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보유인력을 최대 활용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삼성항공이 공개한 F-5 개조후 조종석

기술은 노드롭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③성능개량사업은 노후된 항공전자 장비를 첨단 장비로 교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노

드롭에서 95년 4월에 개발 완료한 F-5E/F 성능개량 모델을 대상으로 노드롭과 공동참여하는 것이며 ④재판매 사업은 각 수요군이 폐기하거나 처분코자 하는 잉여 F-5 항공기를 인수 수명보장이 가능하도록 수리/정비 및 필요시 개조하여 제3국에 재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리/정비 기지로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수리/정비에 필요한 기술지원은 노드롭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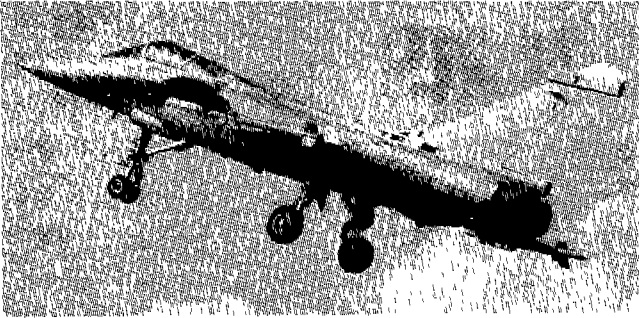
사업전체의 예상규모는 향후 20년간 70억불 규모이며, 한국의 지분은 약 13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항공은 그룹의 전세계에 걸친 지점망을 통하여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장기적인 해외물량 확보로 연간 20억불에 달하는 항공부문 무역역조 개선에 효과적이며 한국 전투기사업(KFP)을 통하여 확보한 초음속훈련기 제작기술, 항공전자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 등을 KFP 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 이후에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켜 국내 항공산업 기술을 토착화가 가능하고 PRODUCT SUPPORT능력(수리, 정비, 개조, 스페아 공급, 수명연장 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내년도 국방예산 대폭 삭감

Rafale 전투기와 Tiger 헬리콥터 인도 늦어질듯

프랑스가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프랑스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Rafale 전투기

Dassault의 Rafale 전투기, Eurocopter의 Tiger 공격헬리콥터, NH90 병력수송 및 대잠헬기의 인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1일 프랑스정부는 1996년도 무기구매 예산을 80억프랑(15억달러)이상 감소된 949억프랑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예상보다 6개월 늦어지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Charles de Gaulle"호의 취항이 1999년 후반기로 늦어지고 함재될 전투기인 Rafale도 그때까지 인도가 연기된다.

공군용 Rafale 전투기는 2000년대 이전에는 인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와 공동개발 중인 NH90 헬리콥터는 프랑스의 구매가 늦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은 당연하다.

전세계 30석이상 여객기 16,379대 운용중 주문대기 1,916대, 최다보유 기종은 MD-80

1995년 6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

는 항공기는 총 16,379대로 조사됐다.

Flight International지가 최근 발표한 이같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30석급 이상 항공기(화물기 포함)는 모두 83기종이며 최다보유 기종은 MD-80(1,104대)이며 다음으로 B727-200(990대), B737-200(925대), AN-24(882대), B737-300(880대), TU-154(754대), B757(665대), DC-9-30(502대), A320(496대), AN-26(447대)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에서 5,882대를 운용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5,793대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와 호주에서는 2,728대를 보유하고 있고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 97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호주지역에서는 300석급이상 대형기종이 715(40%)대로 미주지역 415대(유럽 499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미주나 유럽지역이 주력기종은 100~200석급으로 동급 항공기 총 7,927대 가운데 미주지역에서 4,054대(51%), 유럽지역에서 2,527대(32%)를 보유하고 있다.

주문대기중인 항공기는 미주지역이 839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시아/호주 지역에서 472대를 주문하고 있어 유럽지역보다 7대 많은 것이 주목되며, 이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항공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00석급 이상 대형기종의 보유량은 1,790로 전체 보유량의 10.9%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동기종의 주문량은 412대로 전체 주문량의 21.5%를 차지해 항공기가 대형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항공기 보유/주문 현황

단위: 대

좌석수	아시아 / 호주		유럽		중동 / 아프리카		미국		기타		소계	
	운용	조사	운용	조사	운용	조사	운용	조사	운용	조사	운용	조사
30~99	810	114	2,323	95	287	14	1,442	227	0	6	4,862	456
100~199	926	87	2,527	192	420	45	4,054	346	0	9	7,927	679
200~299	277	87	444	103	108	16	971	160	0	3	1,800	369
300~	715	184	499	75	161	47	415	106	0	0	1,790	412
계	2,728	472	5,793	465	976	122	6,882	839	0	18	16,379	1,916